공주의 남자

정사와 야사 사이 핏빛 로맨스

수·목 밤마다 잠설쳤다

역사 속 이야기에 상상력이 더해져
새로운 사극을 탄생시켰다.
최근 방송 중인 드라마들이 '도토리 키 재기' 하듯
10%대 시청률에 머물고 있을 때
홀로 우뚝 20%를 넘은 드라마 KBS 2TV '공주의 남자'.
7월20일 시작한 '공주의 남자'는
초반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다소 뻔한 스토리와
눈길을 끌 스타급 연기자의 부재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역사 속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가미된 탄탄한 스토리와
빼어난 영상미, 내공을 갖춘 배우들의 연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수목극 부동의 1위에 올라섰다.
6일 종영을 앞두고 있는 '공주의 남자'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다소 진부한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허구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전개로 수목극 1위를 달리는 '공주의 남자'. 사진제공 | KBS

내일 밤 종방…'공주의 남자' 4대 인기비결

1 역사적 사건 속 2세들의 이야기
사극 취약층 20~30대 여심까지 흡수

2 스타는 없어도 배우는 있다
이순재 김영철 박시후 문채원 내공 발산

3 더 이상 '2인자' '재발견'은 싫다
이민우 홍수현 실존인물 내면 연기 일품

4 역사와 허구 사이
해피엔딩? 새드엔딩? 아슬아슬한 줄타기

'공주의 남자'는 박시후-문채원(맨 위), 이민우-홍수현의 애절한 키스신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사진제공 | KBS

●역사와 픽션을 넘나드는 오묘한 조화

'공주의 남자'는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살해한 계유정난이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130여 편의 설화가 실린 야사 '금계필담'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한 작품이다.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주인공들의 '2세'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스토리를 탄생시켰다.

김종서(이순재)의 아들 승유(박시후)가 수양대군(김영철)의 딸 세령(문채원)과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나누고, 문종의 딸 경혜공주(홍수현)와 정종(이민우), 신숙주의 아들 신면(송종호) 등 계유정난 관련자들의 2세들이 등장해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 시켰다.

정통 사극의 형식에 역사와 허구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전개로 40~50대 남성과 20~30대 여성 시청자층을 동시에 공략했다.

●스타는 없지만 내공은 있다

'공주의 남자'는 소위 '광고 판매'에 유리한 스타 대신 내공을 갖춘 연기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드라마의 전체적인 하모니를 구성했다.

극 초반 김종서와 수양대군으로 카리스마 대결을 펼친 이순재와 김영철의 강렬한 연기가 준 인상은 중반까지 이어져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비련의 두 주인공 박시후와 문채원은 가문의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극적인 사랑을 애절하게 표현해 주인공의 몫을 해냈다.

이민우와 홍수현 역시 박시후와 문채원의 사랑 이야기와는 또 다른 축을 형성하며 인기를 뒷받침했다.

●재조명된 2인자들

문채원은 방송 초반 연기력 논란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지조와 절개를 갖춘 여인의 모습으로 연기력 논란을 잠재웠다. 과거 여러 작품에서 주로 조연으로 등장한 홍수현은 남편 정종을 잃고 노비의 신세로 전락하는 비운의 왕녀 경혜공주 역을 완벽히 소화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극 초반부터 후반까지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며 장난기 많은 호인의 모습에서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연기를 보여준 이민우 역시 경력 30년의 내공을 과시했다.

●해피 엔딩? 새드 엔딩? 결말에 관심

6일 종영까지 2회가 남은 가운데 시청자들의 관심은 결말에 쏠려 있다.

특히 김승유와 세령의 사랑이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증이다. 열혈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야사 금계필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점에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 적절히 가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부분과 야사의 이야기를 한번에 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 @mangoostar·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트위터@e_joyful

스타, 그때의 오늘

1982년 한국 최초 여배우 복혜숙 타계

1920년대까지만 해도 무대 위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자 배우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 여배우의 등장으로 무대의 분위기는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바로 복혜숙(사진)의 이야기다.

1904년생인 복혜숙은 18세 때 신극좌에 입단, '오호천명'으로 데뷔했다. 그는 연극무대에서 '진짜 여배우'로서 커다란 화제를 모았다. 그래서 복혜숙은 한국 최초의 여배우로 추앙받고 있다.

1982년 오늘, 복혜숙이 78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최초의 여배우이면서 한국영화사의 산증인으로 불린 이였다.

충남 태생인 복혜숙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10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 여자기예학교를 다녔다. 그만큼 예술적 기질을 일찍부터 드러냈다. 하지만 목사인 아버지는 딸이 배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복혜숙은 기어이 집을 나와 무대에 나섰다.

토월회 등을 거치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벌인 복혜숙의 영화 데뷔작은 1926년 영화 '농중조'. 신여성 역할을 맡아 각선미를 드러내며 신선한 충격을 몰고오기도 했다. 17세 때 윤백남 감독의 방역 계몽영화에 가명으로 출연했다는 기록도 있다. 1940년 작품 '수업료'의 할머니 역을 계기로 주로 노역을 연기한 복혜숙은 해방 이후에는 어머니 역으로 명성을 떨쳤다.

'낙화유수' '청풍' 등 모두 400여편의 영화에 출연한 복혜숙은 "배우가 되기 위해 태어났으므로 은퇴는 없다"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도 영화 '낮은데로 임하소서' 까지 출연할 만큼 평생 열정을 불태우며 살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스타 온라인

제시카·크리스탈 자매 셀카 "축복 받은 유전자"

자매인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본명 정수연)과 에프엑스 멤버 크리스탈(정수정)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4일 오후 한 포털사이트에는 '우월한 민낯 정자매'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서 크리스탈과 제시카는 화장기 없는 민낯임에도 미모를 과시하고 있다. 자매는 나란히 두 손을 양 볼에 갖다 대고 입을 앙 다물어 귀여운 표정을 연출하고 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역시 우월한 자매! 진짜 똑같이 생겼네" "민낯도 예쁘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제시카는 소녀시대로 이달 중순부터 가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크리스탈은 현재 MBC 시트콤 '하이킥3-짧은 다리의 역습'에 출연중이다.

구하라 피팅모델 사진 "과거에도 좀 예뻤네"

여성그룹 카라의 구하라가 데뷔전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로 활동하던 때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피팅모델 시절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구하라의 옛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다. 사진에서 구하라는 지금과 달리 수수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추억 돋네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티셔츠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과거에도 좀 예뻤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하라는 SBS '강심장'에 출연해 치아교정과 눈 수술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스타 가라사대

연기자 김아중 "산다는 것은 한편의 드라마는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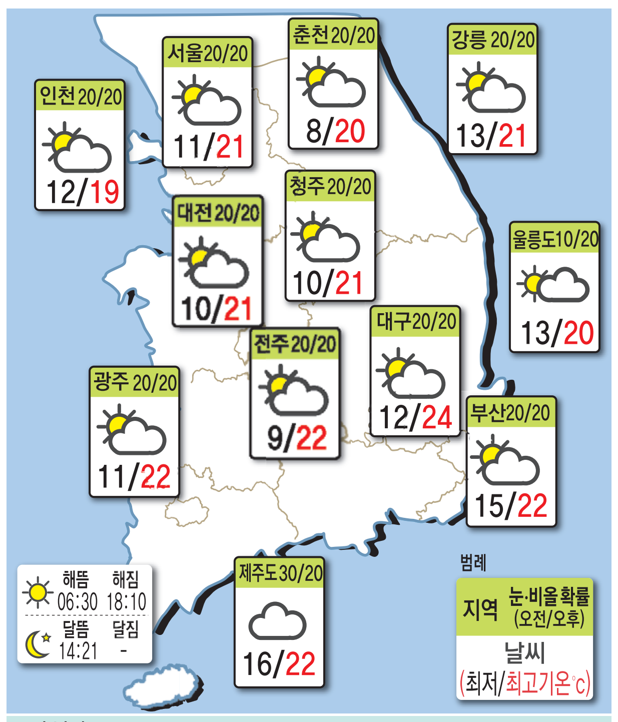
2일 트위터(@ajoongkim)에 세금 탈루 논란과 관련해 공지영의 소설 '고등어'의 한 구절로 현재 심경을 빗대며.

소녀시대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 "원더걸스는 미국에서 실패했다.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1일 트위터(@Teddy Riley1)에 소녀시대 앨범이 미국에서도 발매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오늘의 날씨

10월 5일 수요일 (음력 9월 9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6일(목)	12/21	7/20	10/21	10/22	12/23	17/23
7일(금)	10/22	8/21	10/22	12/23	15/23	15/22
8일(토)	12/23	9/23	11/23	12/24	15/24	16/23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편집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인쇄인 최맹호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편집국장 이성춘	스포츠2부 02 2020 1051		2008년 3월 24일 창간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